

보도자료

18대 대선 이후 한국정치의 지각변동 2013-2014년 전국 사회조사 자료분석

이 보도자료는 한상진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3년 3월과 2014년 1월에 수행한 전국 설문조사 자료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분석하여 2014년 2월 3일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hantheory.org/>) 에 공개한 내용의 <요약 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덧붙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발견

1. 정당의 사회적 지지기반 매우 취약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6%,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8.8%의 지지를 얻어 양당체제의 굳건한 기반을 증명한 듯 하였으나 2013년 3월 조사결과, 새누리당 지지는 30.0%, 민주당 지지는 15.0%에 그쳤다. 대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50.9%에 달했다. 대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박근혜 투표자의 33.6%, 문재인 투표자의 62.7%는 무당파로 변했다.

2. 양대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추락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8개 항목의 정당기능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보면, 2014년 1월 현재, 국민의 실망감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13년 3월 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신뢰는 100점 만점에 36.1점이고 민주당은 33.3점이었다. 이것이 2014년 1월이 되면 새누리당의 경우, 36.1점에서 31.7점으로, 민주당은 33.3점에서 29.4점으로 하락했다. 이런 배경에서 무당파는 50.9%에서 53.3%로 증가했다. 정치지형의 심대한 지각변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보도자료

3. 안철수 신당의 선두주자 부상

2014년 1월 하순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33.3%에 달해 새누리당 지지 24.4%, 민주당 지지 6.0%를 단연 앞선다. 다른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20-40대 연령층에서 현저히 많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현저히 적다. 전문대 이상 학력 소유자, 호남, 충청, 서울 거주자들이 많다. 직업으로 보면, 사무/관리/전문직과 학생들이 매우 많고, 이념성향으로는 보수보다 진보가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은 정체성의 영향력이다. 풀뿌리 중류층(중민)이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의 42.7%를 이루며 풀뿌리 서민(기층민중)이 38.7%를 이룬다. 이에 비해 중산주류는 18.3%, 기층신민은 16.7%를 이룬다. 한편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61.7%는 무당파 출신이다. 새누리당 출신은 11.7%, 민주당 출신은 16.2%를 이룬다. 기존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의 13.5%, 민주당 지지자의 44.2%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한다. 무당파의 경우, 38.5%는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지만 58.3%는 여전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남는다.

<표1> 대선 후보 투표자 별 2014년 지지정당 (%)

(명)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전체
박근혜 투표자	51.1	0.8	17.5	0.6	30.0	100.0
문재인 투표자	0.5	12.3	49.7	4.3	33.3	100.0
기타	10.1	3.4	35.1	4.7	46.6	100.0
전체	24.4	6.0	33.3	2.7	33.6	100.0 (1059)

보도자료

주요 설명

4. 통상의 설명

‘안철수 현상’에 대한 통상의 설명은 민생을 도외시한 적대적 공생관계로 특징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안철수 현상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다. 때문에 안철수 현상은 정치변동을 이끄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 여야 관계에 따라 변하는 ‘거품,’ 일시적 현상, 불안정한 대중심리, 지속가능성이 약한 모호하고 유동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다양한 성향의 유권자들을 공통의 틀로 묶을 수 있는 정체성, 가치관, 이해관계 등이 있는가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5. 새로운 설명 시도: 프레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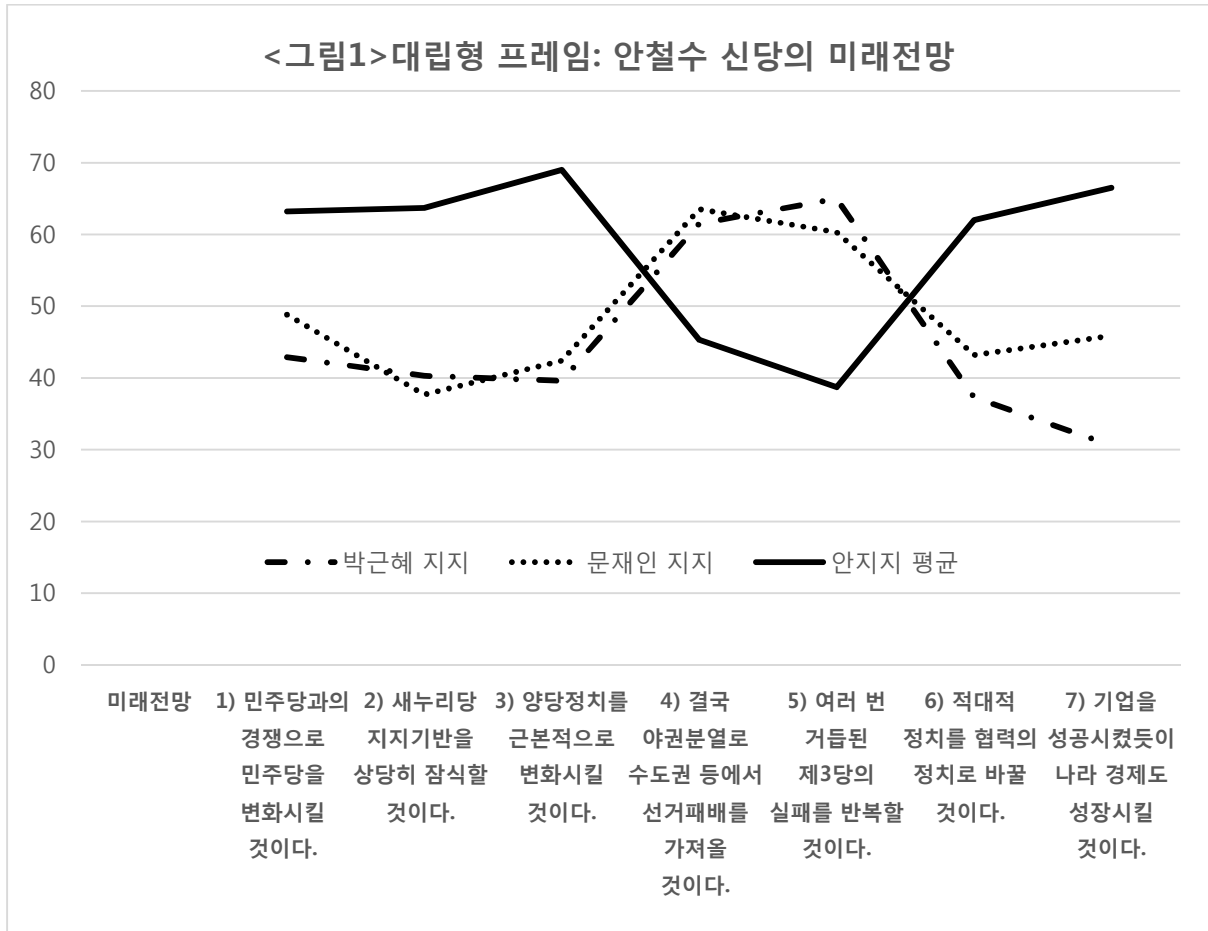
2014년 1월 전국조사의 한 의의는 이런 설명의 빈 터를 메우려는 시도에 있다. 방식은 초점을 밀어내는 요인에서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요인이 결합하면 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안철수의 9가지 정치자산, 이미지 10항목, 안철수 신당의 미래전망 10항목을 추출하여 국민의 반응을 측정했다. 이것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안철수 신당 지지 유권자들 사이에 사물의 인식과 가치판단을 이끄는 공통의 ‘프레임’ 또는 내적 응집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대립 형’ 프레임: 선명히 구별되는 미래 전망

안철수 신당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망에서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는 똑 같은 프레임으로 사물을 본다.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안철수 신당 지지 유권자는 모든 면에서 대립적 프레임으로 미래를 본다. 차이가 일관되고 매우 크다. 전자를 ‘실패를 전제한 부정적 프레임’이라고 한다

보도자료

면, 후자는 '변화를 향한 긍정적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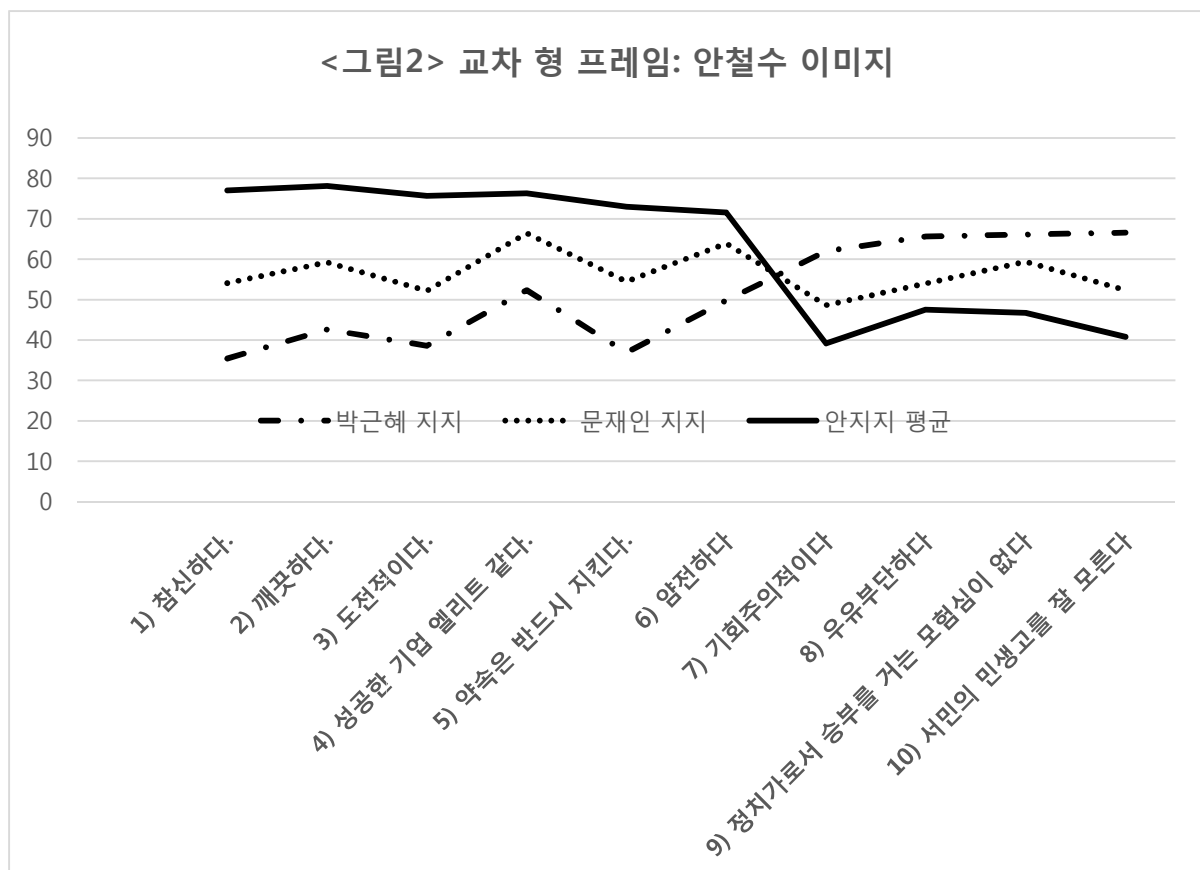


7. '교차 형' 프레임: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이미지

안철수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프레임은 '교차 형'의 특징을 보인다.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교차하는 분기점에서 특히 박근혜 투표자와 안철수 신당 지지 유권자의 프레임이 갈라선다. 대체로 문재인 투표자의 프레임은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혼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이미지 분포의 중간에 일관되게 위치한다. 반면 박근혜 투표자는 긍정적 이미지 항목에 관해서는 대체로 낮은 공감을 보이면서 부정적 이미지 항목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높은 공

보도자료

감을 표현하다. 이와 반대로 안철수 신당 지지 유권자는 긍정적 이미지에 높은 공감을 표현하고 부정적 이미지에 낮은 공감을 표현한다. 교차 형 프레임이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에 따라 박근혜 투표자와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평가 전략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투표자는 양 측면을 혼합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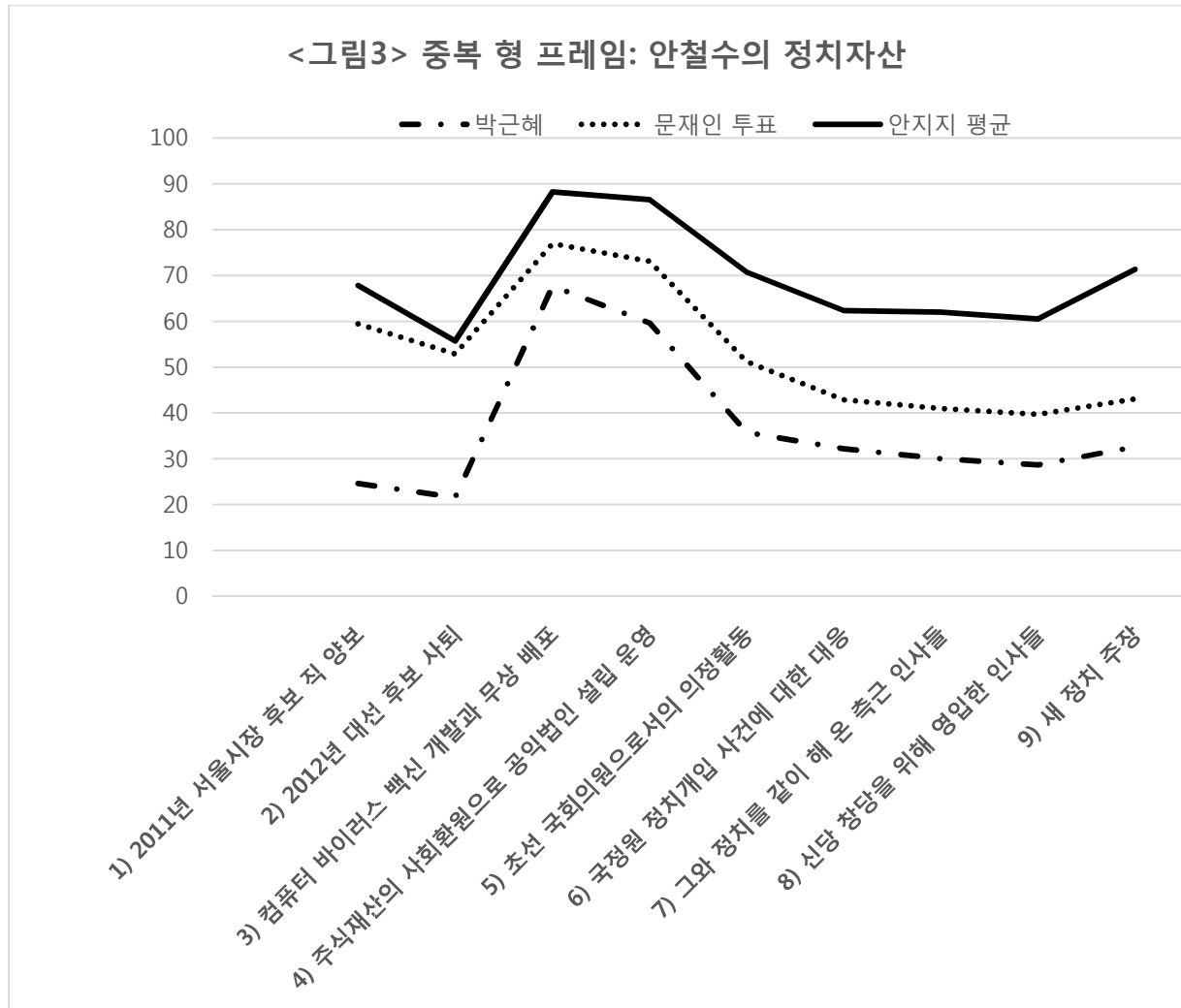


8. '중복 형' 프레임: 두드러진 도덕적 자산

안철수 정치자산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정치성향에 따라 공감의 정도는 상당히 크지만 그럼에도 같은 모양 또는 패턴(구성)을 보인다. 비정치적 나눔의 실천은 지지정당, 후보투표를 떠나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다. 상당히 큰 도

보도 자료

덕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8대 대선 후보 양보, 안철수 측근 인사, 인재 영입, 국정원 정치개입 등에 대한 대응은 공감의 정도가 낮다.



9. 프레임 분석의 의의

① 프레임의 구조 상 두 개의 정점이 명백히 대립되는 미래 전망의 프레임은 쉽게 변형되기 힘들다. 오직 선거와 같은 실천적인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도자료

- ② 두 개의 정점이 정파를 떠나 공유되는 정치자산에 관한 프레임은 안철수 신당 측에 상당히 유리하다. 노력과 설득에 따라 프레임 구성이 변형될 수 있는 영역이다.
- ③ 교차 형으로 들어난 이미지 프레임은 정점이 없고 중심의 흡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원칙상 교차지점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긍정적, 부정적 프레임의 확산 또는 축소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결론적으로 2014년 1월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가 안철수 신당 지지로 이동하는 데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하지만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공통의 가치 지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소한 '내 집단'의 응집력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것은 안철수 현상의 지속가능성을 암시한다.
2. 2014년 1월 하순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33.3%)이 새누리당(24.4%)보다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유권자의 33.6%는 여전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남기 때문에 한국 정치지형은 매우 유동적이다.
3. 안철수 신당의 도전은 새누리당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기능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2003년 3월에 비해 2004년 1월 현재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투표자의 경우에서도 뚜렷하다. 따라서 진영논리 이후의 정치에 대한 안철수 신당의 분명한 청사진과 대중적 공감에 따라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도자료

4. 민주당의 선택은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야권분열로 인한 공멸의 두려움이 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에 따라 민주당의 선택과 미래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야권연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당의 집합의지를 담은 구체적 실천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신당 창당에 관해서만 보자면 안철수 신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넓다. 그러나 선거전략에 관해서 보자면 지지집단의 불안과 우려를 깊게 헤아리는 정치적 책임감과 지혜가 갈수록 요구될 것이다. 모든 정치적 선택은 의도했던 결과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보 도 자 료

[전 문]

18대 대선 이후 한국정치의 지각변동 2013-2014년 전국 사회조사 자료분석

이 자료는 한상진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3년 3월과 2014년 1월에 수행한 전국 설문조사 자료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분석하여 2014년 2월 3일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hantheory.org/>) 에 공개한 내용의 <전문> 입니다.

● 2013년과 2014년 조사자료의 인구학적 특성

2013 국민의식조사			2014 국민의식조사		
항목	사례 수 (명)	비율 (%)	항목	사례 수 (명)	비율 (%)
전체	1,026	100	전체	1,059	100
성별			성별		
남자	509	49.6	남자	524	49.5
여자	517	50.4	여자	535	50.5
연령			연령		
만 19 세 - 만 29 세	192	18.7	만 19 세 - 만 29 세	188	17.8
만 30 세 - 만 39 세	209	20.4	만 30 세 - 만 39 세	208	19.6
만 40 세 - 만 49 세	220	21.4	만 40 세 - 만 49 세	230	21.7
만 50 세 - 만 59 세	198	19.3	만 50 세 - 만 59 세	207	19.5
만 60 세 이상	207	20.2	만 60 세 이상	226	21.3
학력			학력		
중졸 이하	131	12.8	중졸이하	28	2.6
고졸	260	25.3	고졸	265	25
전문 대재 이상	635	61.9	전문 대재 이상	767	72.4

보도자료

거주지역			거주지역		
서울	205	20	서울	217	20.5
인천/경기	295	28.8	인천/경기	307	29
대전/충청	104	10.1	대전/충청	107	10.1
광주/전라	104	10.1	광주/전라	108	10.2
대구/경북	105	10.2	대구/경북	110	10.4
부산/울산/경남	167	16.3	부산/울산/경남	167	15.8
강원/제주	46	4.5	강원/제주	43	4.1
직업			직업		
농/임/어업	28	2.7	농/임/어업	15	1.4
자영업	122	11.9	자영업	138	13.1
판매/영업/서비스직	124	12.1	판매/영업/서비스직	131	12.3
생산/기능/노무직	114	11.1	생산/기능/노무직	141	13.3
사무/관리/전문직	247	24.1	사무/관리/전문직	222	20.9
주부	207	20.2	주부	276	26
학생	118	11.5	학생	78	7.4
무직/퇴직/기타	66	6.4	무직/퇴직/기타	58	5.5
계층			계층		
상층	17	1.7	상층	13	1.2
중층	577	56.2	중층	566	53.4
하층	432	42.1	하층	480	45.4

● 2013년과 2014년 조사개요

구분	2013 국민의식조사	2014 국민의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의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1,026 명	1,059 명
표본추출	2013 년 1 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2013 년 11 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오차	95% 신뢰도 수준에서 $\pm 3\%p$	95% 신뢰도 수준에서 $\pm 3\%p$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CAWI :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CAWI :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보 도 자 료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3년 3월 4일 ~ 3월 15일 (12일간)	2014년 1월 16일 ~ 1월 24일 (9일간)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2014년 국민의식조사 응답률

1	메일 발송 수	19306
2	메일 오픈 수	4547
3	설문 참여자 수	3640
4	응답완료자 수	1059

1. 응답률 A = 응답완료자 수 / 메일 발송 수 : 5.5%
2. 응답률 B = 응답완료자 수 / 메일 오픈 수 : 22.8%
3. 응답률 C = 응답완료자 수 / 설문 참여자 수 : 29.1%

출발점: 2012년 18대 대선

1. 18대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율은 75,8%였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6%의 지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8.0%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로써 양당의 국민의사의 대변 기능이 견고한 것처럼 보였다.

보도자료

지각변동의 신호탄: 무당파의 급증과 안철수 신당

2. 그러나 양대 정당의 취약한 사회적 대표성은 곧 드러났다. 2013년 3월의 조사 결과, 새누리당 지지는 30.9%였고 민주당 지지는 15.4%에 그쳤다. 대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50.9%에 달했다. 18대 대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박근혜 투표자의 33.6%, 문재인 투표자의 62.7%는 무당파로 변했다.
3. 18대 대선의 한 특징은 여야 후보의 인기가 소속 정당의 인기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후보는 좋지만 새누리당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문재인 후보는 좋지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든다'는 유권자 정서가 이 결과에 녹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4. 그러나 2014년 1월 하순의 조사결과는 이런 안이한 해석을 뒤집는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박근혜 투표자의 51.1%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17.5%는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며 30.0%는 무당파로 변한다. 문재인 투표자는 오직 12.3%만이 민주당을 지지하며 49.7%는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고 33.3%는 지지정당 없는 무당파로 변한다.

그 결과, 2014년 1월 하순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33.3%에 달해 새누리당 지지 24.4%, 민주당 지지 6.0%를 단연 앞선다. 다른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20-40대 연령층에서 현저히 많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현저히 적다. 전문대 이상 학력 소유자, 호남, 충청, 서울 거주자들이 많다. 직업으로 보면, 사무/관리/전문직과 학생들이 매우 많고, 이념성향으로는 보수보다 진보가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은 정체성의 영향력이다. 풀뿌리 중류층(중민)이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의 42.7%를 이루며 풀뿌리 서민(기층민중)이 38.7%를 이룬다. 이에 비해 중산주류는 18.3%, 기층신민은 16.7%를 이룬다. 한편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61.7%는 무당파 출신이다. 새누리당 출신은 11.7%, 민주당 출신은 16.2%를 이룬다. 기존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의 13.5%, 민주당 지지자의 44.2%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한다. 무당파의 경우, 38.5%는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지만 58.3%는 여전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남는다.

보 도 자 료

<표1> 18대 대선 후보 투표자 별 2014년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정당지지(%)

%(명)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전체
박근혜 투표자	51.1	0.8	17.5	0.6	30.0	100.0
문재인 투표자	0.5	12.3	49.7	4.3	33.3	100.0
기타	10.1	3.4	35.1	4.7	46.6	100.0
전체	24.4	6.0	33.3	2.7	33.6	100.0 (1059)

<표2> 2014년 기존 정당 지지 별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지지 정당 변화 (%)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전체
새누리당	80.9	0.0	13.5	0.7	4.9	100.0
민주당	3.1	44.2	44.2	1.6	7.0	100.0
기타정당	0.0	3.3	59.0	34.4	3.3	100.0
지지정당 없음	1.6	0.9	38.5	0.7	58.3	100.0
전체	24.4	6.0	33.3	2.7	33.6	100.0 (1059)

- <표1>과 <표2>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지면서 안철수 신당의 창당을 계기로 하여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각변동의 뿌리: 여야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

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급증과 안철수 신당의 바람으로 특징되는 정치지형 변화의 원인은 여야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상실에 있다. 극단적인 여야 대립과 진영논리에 대한 국민대중의 실망과 피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권자를 기성 정치권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보 도 자 료

7. 정당 기능 8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측정했다. 똑 같은 문항으로 2013 년 평가와 2014 년 평가를 비교했다.

- 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 ②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 ③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 ④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 ⑤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 ⑥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 ⑦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신속히 해결한다.
- ⑧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다.

8. 측정 결과, 2013 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8 개항목 모두 100 점 만점 평균 30 점대로 낮았다. 새누리당에 대한 8 개 항목 평균 값은 36.1 점이고 민주당에 대한 평균 값은 33.3 점이다. 박근혜 투표자마저도 새누리당 평가의 평균은 50 점 미만이다.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투표자의 평가는 불과 38.5 점에 불과하다.

➤ 이것은 한국 정당이 선거 때만 반짝 움직일 뿐 평소에는 국민의 관심 밖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표 2> 정당 기능에 대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평가 (100 점 만점 평균)

새누리당은	2013 국민의식조사				2014 국민의식조사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국민	F-test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국민	F-test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54.8	26.3	40.1	390.8***	51.9	16.0	33.9	617.1***

보도자료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51.9	24.1	37.8	352.0***	50.0	14.5	32.1	619.0***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52.2	23.8	37.7	369.0***	49.6	16.5	32.9	522.0***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44.2	18.8	31.2	294.6***	42.2	12.7	27.5	450.6***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49.3	30.1	39.1	131.5***	46.1	25.0	35.5	156.8***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44.3	19.7	31.9	269.1***	42.5	14.5	28.5	414.2***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44.5	22.8	33.6	204.0***	42.3	17.1	29.5	284.0***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50.0	24.4	37.0	291.9***	49.4	17.9	33.4	454.9***
전체 평균	48.9	23.8	36.1	410.0***	46.7	16.8	31.7	608.2***

*p<0.05, **p<0.01, ***p<0.001

<표 3> 정당 기능에 대한 유권자의 민주당 평가

민주당은	2013 국민의식조사				2014 국민의식조사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국민	F-test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국민	F-test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29.2	40.3	34.7	59.3***	25.5	34.5	29.9	41.3***

보도자료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26.3	37.7	32.2	67.2***	22.6	32.2	27.2	46.8***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28.2	41.4	34.8	79.7***	25.4	36.4	30.7	57.3***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28.1	41.0	34.4	73.6***	24.1	36.5	30.0	69.3***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23.3	28.7	26.4	13.9***	21.9	27.6	24.9	15.1***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31.1	43.0	37.0	58.7***	29.3	39.0	33.6	39.5***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25.8	33.4	29.7	29.8***	22.6	28.5	25.4	21.1***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31.1	42.9	37.2	63.2***	27.9	41.0	33.8	73.3***
전체 평균	27.9	38.5	33.3	78.1***	24.9	34.5	29.4	63.2***

*p<0.05, **p<0.01, ***p<0.001

9. 2013 년에 비해 2014 년의 평가는 더 나쁘다. 8 개 항목에 대한 새누리당의 평균적 국민평가는 2013 년 36.1 점에서 2014 년 31.7 점으로 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33.3 점에서 29.4 점으로 낮아졌다. 가장 극심한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문재인 투표자의 신뢰 하락이다. 23.6 점에서 16.8 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10.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도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14 년 1 월 현재,

보 도 자 료

박근혜 투표자가 새누리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8 개 항목 가운데 평균 50 점을 간신히 넘은 2 개 항목뿐이다.

11. 새누리당을 불신하는 문재인 투표자의 성향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들의 새누리당 평가가 2013 년 100 점 만점에 평균 23.6 점에서 2014 년 16.8 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 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안철수 신당 지지 집단의 구성

12. 이런 배경에서 정치지형은 중대한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각변동의 가시적 징표는 유권자의 50%를 상회하는 무당파의 지속 또는 확대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 있다.
13.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세 집단으로 구성된다. 1) 첫째는 무당파 출신이며 이들은 안철수 지지 전체의 61.7%를 이룬다. 둘째 새누리당 출신은 11.7%, 셋째 민주당 출신은 16.2%를 이룬다.
14. 기존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표2> 참조), 새누리당은 원래 지지자의 13.5%, 민주당은 원래 지지자의 44.2%가 안철수 신당 지지로 이동한다. 무당파의 경우 38.5%는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지만 다수, 58.3%는 여전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남는다.

경험적 연구: 프레임 분석

15. 그렇다면, 다양하고 이질적일 수 있는 안철수 신당 지지 집단들을 공통의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가? '안철수 현상'에 대한 통상의 설명은 민생을 도외시한 적대적 공생관계로 특징되는 여야 정치권에

보 도 자 료

대한 실망이 안철수 현상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밀어내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다. 때문에 안철수 현상은 정치변동을 이끄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 여야 관계에 따라 변하는 '거품' 일시적 현상, 불안정한 대중심리, 지속가능성이 약한 모호하고 유동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2014년 1월 전국조사의 한 의의는 이런 설명의 빈 터를 메우려는 시도에 있다. 방식은 초점을 밀어내는 요인에서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요인이 결합하면 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안철수의 9가지 정치자산, 이미지 10항목, 안철수 신당의 미래전망 10항목을 추출하여 국민의 반응을 측정했다. 이것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안철수 신당 지지 유권자들 사이에 사물의 인식과 가치판단을 이끄는 공통의 '프레임' 또는 내적 응집력의 여부 및 정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16. 정치자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을 선택했다.

- ①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직 양보,
- ②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 ③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무상배포,
- ④ 주식재산의 사회환원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
- 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 ⑥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
- ⑦ 그와 정치를 같이 해온 측근 인사들,
- ⑧ 신당 창당을 위해 영입한 인사들,
- ⑨ 새 정치 주장

10. 이미지 항목으로는 10가지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선택했다.

- ① 참신하다.
- ② 깨끗하다,
- ③ 도전적이다.

보도자료

- ④ 성공한 기업 엘리트 같다,
- 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⑥ 암전하다,
- ⑦ 기회주의적이다.
- ⑧ 우유부단하다,
- ⑨ 정치가로서 승부를 거는 모험심이 없다,
- ⑩ 서민의 민생고를 잘 모른다

11. 신당의 미래전망에 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 7개 항목을 뽑았다.

- ①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킬 것이다.
- ②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을 상당히 잠식할 것이다.
- ③ 양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④ 결국 야권분열로 수도권 등에서 선거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 ⑤ 여러 번 거듭된 제3당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 ⑥ 적대적 정치를 협력의 정치로 바꿀 것이다.
- ⑦ 기업을 성공시켰듯이 나라 경제도 성장시킬 것이다.

정치자산 프레임: 무너지기 힘든 대중의 공감대

12. 정치자산은 유권자의 정치의식에 각인된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호감도를 뜻한다. 호감도가 높을수록 유권자는 매력과 정서적 친밀성을 느낀다. 안철수의 가장 훌륭한 정치자산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무상 배포 및 주식재산의 사회환원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있다. 지지 후보, 지지 정당을 떠나 100점 만점으로 전자는 평균 78.6점, 후자는 73.5점의 높은 공감을 얻는다. 비정치적 나눔의 실천이 주는 감동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새 정치 주장이 각각 평균 52.2점과 50.0점을 얻어 다소 호감을 얻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직 양보는 49.4점이다. 이것은 근래 안철수 진영이 과거의 양보를 대가로 하여 미래의 양보를 얻으려 한다는 보도가

보도자료

이어지면서 이런 타산적 태도가 안철수의 도덕적 자산을 훼손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13. 정치적 자산의 평가에서 부정적 함의가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 안철수 주변의 측근 인사들, 신당 창당을 위해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다. 박근혜 투표자는 이런 항목들에 특히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만, 문재인 투표자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14.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정치적 자산은 2012년 대선 후보 사퇴다. 이 행동은 감동을 주는 정치자산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었으나 단견과 실책으로 잠재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투표자의 호감도는 불과 21.6점이고 무당파의 호감도도 37.9점에 불과하다. 문재인 투표자의 호감도는 50점을 약간 넘은 52.9점에 머문다.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9가지 정치자산 가운데 호감도가 가장 낮다.

▶ 이하의 표들을 읽는 하나의 방법은 1) 각 항목에 대한 안철수 지지자의 평균을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등과 비교하면서 2)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세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자에서는 차이가 매우 큰 데 반해 후자에서는 작다는 점이 드러난다.

<표4> 유권자 정치 성향에 따른 안철수 정치자산의 평가 (100점 만점 평균)

안철수 정치자산	국민 평균	박근혜 투표자	박→安 지지	문재인 투표자	문→安 지지	무당파	무당파→安 지지	安 지지층 평균
1) 2011년 서울시장 후보직 양보	49.4	24.6	55.0	59.4	67.5	47.0	70.1	67.8
2)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40.9	21.6	46.0	52.9	57.4	37.9	56.7	55.7
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무상 배포	78.6	67.7	87.5	76.9	83.9	77.4	89.8	88.2
4) 주식재산의 사회환원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	73.5	59.6	84.6	73.1	83.1	70.9	87.4	86.5
5) 초선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의정활동	52.2	35.8	65.0	51.2	70.3	46.3	71.4	70.7

보도자료

6)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	45.6	32.2	57.0	42.9	61.8	40.2	62.5	62.3
7) 그와 정치를 같이 해온 측근 인사들	44.3	30.0	55.5	41.0	60.4	38.4	63.1	62.0
8) 신당 창당을 위해 영입한 인사들	43.5	28.7	53.3	39.7	60.0	38.5	61.6	60.5
9) 새 정치 주장	50.0	32.6	60.8	43.1	68.9	43.7	73.8	71.3

15. 안철수 정치자신의 평가 프레임은 3)과 4)의 두 개의 정점으로 모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안철수 신당 지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평가의 프레임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은 약하다. 이것은 안철수 정치자신에 대한 대중의 공감의 쉽게 무너지기 힘든 토대가 있음을 뜻한다.

이미지 프레임: 엇갈리는 안철수의 이미지

16. 10가지 이미지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이미지는 '성공한 기업 엘리트 같다' (64.5점)이고 뒤를 이어 '암전하다' (60.2점), '깨끗하다' (59.0점), '도전적이다' (56.5점), '참신하다' (55.1점),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54.2점) 등이 따른다. 다른 한편,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다. 가장 부정적인 것은 '정치가로서 승부를 거는 모험심이 없다' (56.1점)이고, '우유부단하다' (55.0점), '서민의 민생고를 모른다' (53.0점)가 뒤를 따른다.

17. 이미지 호감도는 유권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일관되게 큰 차이를 보인다. 박근혜 투표자의 호감도는 일관되게 낮고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일관되게 높다. 문재인 투표자는 중간에 있다. 이것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중간 수준에서 같이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안철수 신당 지지 집단 가운데서도 호감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무당파에서 이동한 유권자이다.

보도자료

<표5> 유권자 정치성향에 따른 안철수 이미지 평가 (100점 만점 평균)

안철수 이미지	국민 평균	박근혜 투표자	박→安 지지	문재인 투표자	문→安 지지	무당파	무당파→安 지지	安 지지층 평균
1) 참신하다.	55.1	35.4	73.9	54.1	75.0	48.9	78.2	77.0
2) 깨끗하다.	59.0	42.6	74.9	59.2	75.3	53.2	79.5	78.1
3) 도전적이다.	56.5	38.6	67.4	52.2	75.5	52.1	78.1	75.7
4) 성공한 기업 엘리트 같다.	64.5	52.3	74.2	66.4	77.7	61.2	77.0	76.3
5)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54.2	36.9	71.5	54.5	72.6	48.6	73.7	73.0
6) 야전하다	60.2	49.8	70.7	63.9	66.9	55.7	72.6	71.6
7) 기회주의적이다	48.8	62.0	44.4	48.6	44.5	49.0	37.6	39.1
8) 우유부단하다	55.0	65.6	58.4	54.0	42.5	54.6	46.3	47.5
9) 정치가로서 승부를 거는 모험심이 없다	56.1	66.1	56.4	59.4	40.9	57.3	46.2	46.7
10) 서민의 민생고를 잘 모른다	53.0	66.6	54.0	52.3	38.5	54.4	39.2	40.8

미래전망의 프레임: 선명히 대립되는 두 개의 입장

18. 안철수 신당의 미래를 해석하는 프레임은 뚜렷하게 대립적이다. 대립의 한 축에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가 있다. 이들은 정치성향, 선호하는 정책, 정당 평가 등에서 화해가 쉽지 않을 만큼 적대적이지만, 안철수 신당의 미래에 관해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평가의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다. 실패를 전제하는 부정적 프레임으로 미래를 본다. 그 반대 편에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변화를 향한 눈으로 미래를 해석한다.

보 도 자 료

19. 더 나아가 1) 박근혜 투표자와 이로부터 안철수 지지 쪽으로 이동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2) 문재인 투표자와 이로부터 안철수 지지 쪽으로 이동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3) 아울러 무당파와 이로부터 안철수 지지 쪽으로 이동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각각 매우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이동경로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지향이 기저에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6> 유권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안철수 신당의 미래전방 (100점 만점 평균)

안철수 신당의 미래전방	국민 평균	박근혜 투표자	박→安 지지	문재인 투표자	문→安 지지	무당파	무당파→ 安 지지	安 지지 층 평균
1)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킬 것이다.	52.2	42.9	59.4	48.8	64.1	49.1	63.3	63.2
2) 새누리당 지지기반을 상당히 잠식할 것이다.	50.4	40.3	63.4	37.7	62.2	46.6	64.4	63.7
3) 양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52.2	39.6	64.8	42.4	65.2	46.4	69.8	69.0
4) 결국 야권분열로 수도권 등에서 선거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53.9	61.5	48.2	63.5	44.9	54.6	44.0	45.3
5) 여러 번 거듭된 제3당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51.9	65.0	48.6	60.3	37.7	54.0	36.0	38.7
6) 적대적 정치를 협력의 정치로 바꿀 것이다.	47.9	37.3	67.4	43.2	55.9	42.6	63.0	62.0
7) 기업을 성공시켰듯이 나라 경제도 성장시킬 것이다.	46.8	30.6	66.9	45.9	62.0	39.2	67.9	66.5

20. 미래전망의 프레임은 항목 4)와 5)의 양 정점을 향하여 두 개의 대립적인 평가프레임이 충돌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레임의 구조에서 두 개의 정점이 뚜렷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프레임의 변형은 어렵고 근본적인 갈등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보 도 자 료

지각변동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21.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자극하는 행동의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고 둘째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이다. 밀어내는 요인의 대표적 보기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다. 이것이 안철수 신당의 동력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2. 2014년 1월 조사의 의미 있는 발견은 밀어내는 요인에 못지 않게 끌어당기는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끌어당기는 요인의 대표적 보기는 미래의 비전, 가치관, 이념, 변화의 열망, 꿈 등이다.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집단이 단순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클 뿐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동기, 열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23. 안철수 신당의 지지 집단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집단’ 형성의 정서적 유대와 가치 지향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석의 3 차원과 요인들에 관하여 분절성과 이질성 대신 동질성과 유사성이 현저하다. 집단 안의 차이는 적은 반면 외집단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내집단’ 방어 의 심리적 기제도 작동하고 있다.
24. 그러나 지지 집단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정치자산, 이미지, 미래전망 등에 관하여 근본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특히 안철수 신당의 미래에 관한 불안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은 7항목의 미래전망 가운데 긍정적 전망들에 대해 평균 60-70점의 높은 기대를 공유한다. “여러 번 거듭된 제3당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38.7점의 공감으로 확실하게 이 전망을 거부했다. 그러나 눈 앞에 다가온 지방 선거에 관련하여 “결국 야권분열로 수도권 등에서 선거패배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공감 정도가 45.3점에 달해 이 전망을 확실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이들 역시 야권 분열로 인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 도 자 료

■ 결론적으로 2014년 1월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가 안철수 신당 지지로 이동하는 데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하지만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공통의 가치 지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소한 '내 집단'의 응집력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것은 안철수 현상의 지속가능성을 암시한다.
2. 2014년 1월 하순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33.3%)이 새누리당(24.4%)보다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유권자의 33.6%는 여전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남기 때문에 한국 정치지형은 매우 유동적이다.
3. 안철수 신당의 도전은 새누리당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기능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2003년 3월에 비해 2004년 1월 현재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투표자의 경우에서도 뚜렷하다. 따라서 진영논리 이후의 정치에 대한 안철수 신당의 분명한 청사진과 대중적 공감에 따라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4. 민주당의 선택은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야권분열로 인한 공멸의 두려움이 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에 따라 민주당의 선택과 미래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야권연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당의 집합의지를 담은 구체적 실천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신당 창당에 관해서만 보자면 안철수 신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넓다. 독자 독립노선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관심과 충격을 이어갈 수

보 도 자 료

있다. 그러나 선거전략에 관해서 보자면 지지집단의 불안과 우려를 깊게 해야리는 정치적 책임감과 지혜가 갈수록 요구될 것이다. 모든 정치적 선택은 의도했던 결과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6. 그 한 길은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를 대변하되 이를 독점하려는 과욕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새 정치의 착근과 확산을 위해 범 정치권의 협력을 선도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과거의 권력지향적 연대모델을 벗어나 진영논리 이후의 정치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뜻한다.
7. 이런 관점에서 새 정치의 개념을 안철수의 정치자산과 이미지에 잘 부합시켜 명료하게 체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보 도 자 료

[부록] 2014 년 국민의식조사 중 관련 설문 항

문40. 선생님께서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셨습니다?

1. 새누리당 박근혜
2. 민주통합당 문재인
3. 기타 후보
4. 투표하지 않았다
5. 투표권이 없었음

문45.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당들 가운데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1. 새누리당
2. 민주당
3. 통합진보당
4. 정의당
5. 그 외 기타 정당
6. 지지정당 없음

문46. 안철수 의원이 새 정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1. 새누리당
2. 민주당
3. 안철수 신당
4. 통합진보당
5. 정의당
6. 그 외 기타 정당
7. 지지정당 없음

보도자료

문47. 선생님은 현재의 새누리당의 모습에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새누리당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1	2	3	4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1	2	3	4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1	2	3	4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1	2	3	4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1	2	3	4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1	2	3	4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1	2	3	4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1	2	3	4

문48. 선생님은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에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민주당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1	2	3	4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1	2	3	4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1	2	3	4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1	2	3	4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1	2	3	4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1	2	3	4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1	2	3	4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1	2	3	4

보 도 자 료

다음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자산을 보기 위해 그의 행동, 이미지, 미래기대 등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문54. 안철수 의원의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모습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전혀 호감이 없다					매우 호감이 있다				
1)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직 양보	1	2	3	4	5	6	7	8	9	10
2)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1	2	3	4	5	6	7	8	9	10
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무상 배포	1	2	3	4	5	6	7	8	9	10
4) 주식재산의 사회환원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	1	2	3	4	5	6	7	8	9	10
5)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1	2	3	4	5	6	7	8	9	10
6)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	1	2	3	4	5	6	7	8	9	10
7) 그와 정치를 같이 해 온 측근 인사들	1	2	3	4	5	6	7	8	9	10
8) 신당 창당을 위해 영입한 인사들	1	2	3	4	5	6	7	8	9	10
9) 새 정치 주장	1	2	3	4	5	6	7	8	9	10

문55.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안철수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참신하다.	1	2	3	4	5	6	7	8	9	10
2) 깨끗하다.	1	2	3	4	5	6	7	8	9	10
3) 도전적이다.	1	2	3	4	5	6	7	8	9	10
4) 성공한 기업 엘리트 같다.	1	2	3	4	5	6	7	8	9	10
5)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	2	3	4	5	6	7	8	9	10
6) 얌전하다	1	2	3	4	5	6	7	8	9	10
7) 기회주의적이다	1	2	3	4	5	6	7	8	9	10
8) 우유부단하다	1	2	3	4	5	6	7	8	9	10
9) 정치가로서 승부를 거는 모험심이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0) 서민의 민생고를 잘 모른다	1	2	3	4	5	6	7	8	9	10

보도자료

문56. 다음은 안철수 신당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나 우려를 적은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킬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
2) 새누리당 지지기반을 상당히 잠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
3) 양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
4) 결국 야권분열로 수도권 등에서 선거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
5) 여러 번 거듭된 제3당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
6) 적대적 정치를 협력의 정치로 바꿀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
7) 기업을 성공시켰듯이 나라 경제도 성장시킬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99)